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0-007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우리 어린이집은
생태친화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은
생태친화
어린이집!





Contents

- 01 생태친화 보육이란? 04
- 02 생태친화어린이집이란? 06
- 03 이렇게 협조해 주세요 10
- 04 가정에서 실천해 보세요 18
- 05 **부록** 8대 실천 과제 22

생태친화 보육이란?



생태친화 보육은 아이들의 본래 아이 모습 그대로, 신나고 활기찬 아이로 키우기 위한 보육입니다. 생태친화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영유아, 부모가 함께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하는 어린이집입니다.



🌿 생태친화 보육 방향

행복한 아이

어른(교사, 부모) 관점, 어른 의도 관철

▶ **아이다움, 아이주도**

과도한 통제와 지침, 경쟁

▶ **아이행복중심, 자율, 조화, 공동체**

어린이집 환경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연령 구분,
정해진 교재교구

▶ **여유로운 시간, 개방된 공간,
연령의 자연스런 통합, 자연물 놀잇감**

어린이집 생활

지식·지능·이성 중시, 학습과 수업
중심 보육

▶ **몸·오감·감성 중시, 놀이·체험 중시,
자연과 함께하는 보육**

교사와 부모의 역할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불신

▶ **자긍심을 가지는 교사,
보육에 함께 참여하는 부모**



생태친화
어린이집
이란?



자연과 만나고, 느끼며 함께 놀아요.

생태친화어린이집은 자연의 변화를 아이들이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생활 공간을 교실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동네, 뒷산, 공원 등지에서 신명 나게 뛰놀며 자연을 만나고 느낍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교실은 이런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추, 가지, 배추 길렀어요.
그래서 김치도 담았는데
매웠지만 맛있어요.



아이들의 삶이 묻어나는 곳이에요.

생태친화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주인공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놀이 공간은 아이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 따라 넓혀질 수 있고,
그림, 사진 등 아이들이 펼쳐낸 이야기로 어린이집 환경을 채워줍니다.



아이들의 놀이가 살아나요.

생태친화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충분히 놀 수 있게
융통성 있는 하루일과가 운영됩니다. 아이들은 “해야 하는 놀이”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스스로 찾아 마음껏 놀이합니다.



선생님!
이거 점심 먹고 좀 놀다가
또 할 거니까
잘 지켜주세요!



생태친화
어린이집
이란?



 어울려 함께 커요.

생태친화어린이집은 다른 반, 다른 연령과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놀이하고 생활합니다. 다양한 연령과 어울리며 책임감과 자신감,
배려심이 깊어져 마음이 한층 성장합니다.



형은 밥 잘 먹어서
감기에 잘 안 걸린다.
너도 잘 먹어서 아프지 마~

언니랑 같이
책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



건강하게 생활해요.

생태친화어린이집에서는 제철 음식과 건강한 식재료,
슬로우 푸드 위주로 건강하게 먹습니다.
물 마시기도 생활화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듭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노니까,
자꾸 목말라요.



아이들이 안팎에서
맘껏 뛰어노니 밥 먹는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믿고 협력하는 보육공동체가 있어요.

생태친화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성장하기 위하여 가정과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들이 모여 친환경 놀이감을 만들기도 하고,
손이 더 많이 가지만 건강하게 조리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도움의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죠.

이렇게
협조해
주세요

아이다움이 살아나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생태친화 보육을 위해
가정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등원 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오전 시간은 아이들의 놀이가 활발하게 꽃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마음껏 놀 수 있게 등원 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편안한 복장을 입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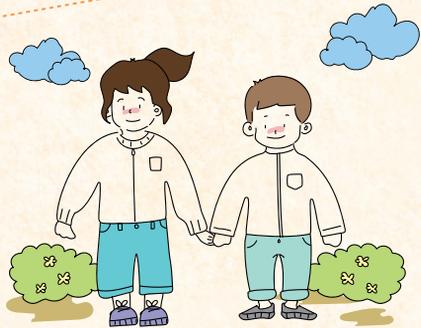
아이들은 때로는 산에서, 바깥에서 자연을 탐색하며 신나게 놀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활동하기 편한 운동화와 복장을 입혀주세요.



신고 벗기 편한
운동화

장신구가 없는
편안한 옷



계절에 맞는 복장

이렇게 협조해 주세요



바깥놀이 가는 아이들을 응원해 주세요.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몸으로 느끼고 배우며, 자연은 아이들에게 계절과 날씨에 따라 매번 새로운 감성을 전해줍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 오는 날 바깥놀이 나갈 때, 걱정하기보다 지지해 주세요.
※ 미세먼지나 한파주의보 등의 기상 예보를 참조하여 실내놀이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궁금합니다

- Q.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으면, 아이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을까요?
A. 생태친화어린이집에서 추구하는 산책이나 바깥놀이의 생활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상 생활 등이 영유아의 기초 체력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유아의 체격 및 체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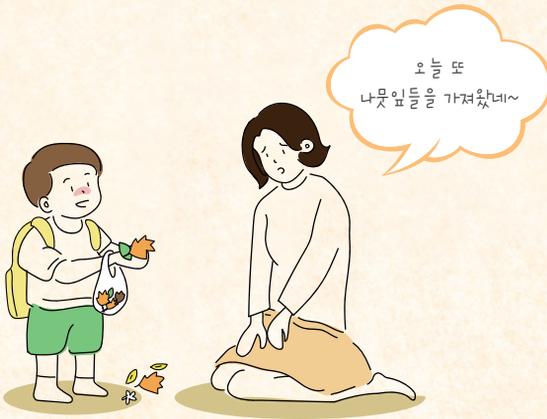


<숲 활동 횟수별 유아 1인당 일평균 투약 횟수>

「생태유아교육기관과 일반유아교육기관 유아의 체격 및 체력 비교 연구」(2010, 김은주 외 4인)
「숲 활동이 유아 감기에 미치는 영향 - 숲 활동 빈도와 감기약 투약 횟수와의 상관성」(2015, 노혜진)

자연물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나뭇잎, 나뭇가지 등 자연물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놀이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져오는 자연물에 담긴 놀이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작은 상처,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밖에서 신나게 놀다 보면, 때로는 언제 다쳤는지 모르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다치거나 모기가 물렸을 때, **아이가 신나게 논 흔적이라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은 위험에 점차적으로 노출될 때, 자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한층 성장합니다.

※ 보육교사는 비상약품을 구비하여 바깥놀이에 동행하고,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고, 회복 과정을 지속해서 살핍니다.



궁금합니다

Q. 밖에서 놀면 많이 다치지 않나요?

A. 선생님들이 미리 규칙을 알려주고, 모든 자연물이 아이들에게는 놀잇감이 되니 오히려 다툼이 줄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많이 놀고 들어오면 차분해지니까 더 사고가 없었어요.

어린이집과 함께 키워주세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정의 협력과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우리 공통의 목표를 위해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 (예시)



개별 손수건, 물통,
충분한 여벌 옷 등 준비하기

재활용품, 자연물을 모아
어린이집에 제공하기



함께 멀리 산책 가기,
텃밭 활동, 조리 과정 등
일상의 보육활동에
참여하기



이렇게
협조해
주세요



♣ 생태놀이의 힘을 믿어주세요.

생태친화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하고, 영유아가 맘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정형화되지 않은 놀잇감과 친환경 소재의 놀잇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물건이 영유아의 상상을 더해 변화가는 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봐주세요.

교실이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드네.
교실에 상자, 병뚜껑 같은 게
많아서 그런가..?



궁금합니다

- Q. 정형화되지 않은 놀잇감이 정말 아이들 놀이를 풍성하게 해주나요?
- A. 정형화된 교구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는데요. 정형화되지 않은 놀잇감을 제공해주니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재발견하고, 저마다 갖고 돌이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 특별활동의 최소화 운영에 협조해 주세요.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교육은 기술 연마나 지식 습득 위주 활동으로 오히려 영유아의 창의성이나 자발적 놀이 욕구를 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이고 배움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노는 자유놀이의 힘을 믿어주세요.



궁금합니다

- Q. 아이들이 정말 놀이를 통해서 배울까요?
- A. “엄마, 이런 거 알아요?” 하며 직접 보던 생물에 대해 얘기해 주고, 자신이 먼저 알았다는 것에 뿌듯해 하는 게 좋더라고요. 스스로 질문하고, 같이 알아보면서 더 생각하고 탐구하는 게 참 좋았어요.



자연과 함께 맘껏 놀아요.

아이들은 미지의 자연에서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상상의 '즐거움'을 가집니다.
도전과 성취를 자극하는 자연에서는 '자극심'을 경험합니다.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건강한 먹거리로 즐겁게 먹어요.

신나고 활기찬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강하게 식사해야 합니다. 농약, 식품첨가물 등을 최소화한 건강한 먹거리는 아이의 몸은 물론, 지구 환경도 같이 지킬 수 있습니다.

■ 건강한 먹거리 (예시)



»» 제철 식품을 먹어요

제철 아닌 식품은 인위적인 환경 조성(비닐하우스 등), 색 보존 및 신선도 연장을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므로 제철 식품보다 영양분이 감소합니다.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먹으면 그 계절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 전통 음식을 먹어요

우리나라의 식습관은 오랜 세월을 통해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형성된 것입니다. 식품첨가물 등으로 보존된 가공식품이 아닌,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먹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생태친화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김치, 된장, 전통 차 등 전통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 물을 마셔요

물은 몸의 70~80%를 구성하여 생명의 원천이고, 체온 조절, 순환 기능 및 배설 기능 등을 조절해줍니다.

물은 수시로! 자주! 많이! 마셔서 건강한 습관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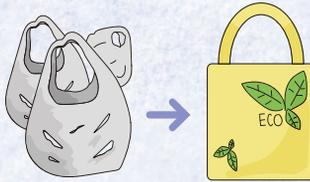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요.

사람과 환경은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자원 고갈,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녹색 공간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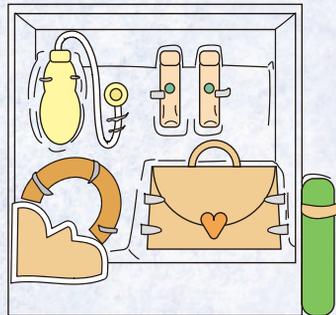
재활용품이 되는 플라스틱은 단 14%,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약 800만 톤, 큰 플라스틱 덩어리를 먹어로 착각하는 해양 동물들.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합니다.



개별 옷, 이불 등
비닐봉지보다 에코백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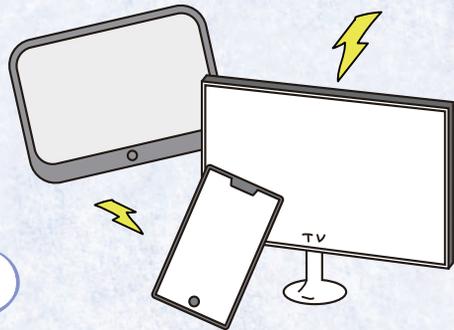
물리슈보다
손걸레로 닦기



과대 포장된 장난감 구매
최소화하기

스마트 미디어 사용 최소화해요.

스마트 미디어는 전자파와 유해 물질이 가득해 영유아에게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보상/칭찬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가정에서도 실천해 주세요.



★ 스마트 미디어 규칙 만들기

- 정해진 시간만 스마트 미디어 사용하기
- 스마트 미디어로 어린이 프로그램만 시청하고, 밤늦게 부모와 함께 시청하지 않기
- 아이들에게 스마트 미디어 주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 돌봄을 대신하거나 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 미디어 주지 않기
- 식사할 때 스마트 미디어를 시청하지 않기
-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천으로 가리거나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기
- 모든 가족이 스마트 미디어 사용 규칙 지키기



생태친화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과 가정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

실천1

자연과 함께 맘껏 놀기

- 충분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중심 보육
- 시간, 공간(놀이영역, 실내·외)의 활용이 자유로운 놀이
- 자연의 소리에 따른 생태놀이 (계절놀이, 손끝놀이, 전래놀이 등)

실천2

바깥에서 신나게 놀기

- 산책, 텃밭활동, 바깥놀이
- 교실 밖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



실천3

여유 있고 편안한 하루 보내기

- 융통성 있고 여유로운 일과 운영
- 영유아와 교사가 바쁘지 않은 하루 보내기

실천4

건강한 먹거리로 즐겁게 먹기

-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
- 즐겁게 식사하기

실천5

자연친화적인 보육공간 만들기

- 생태적 환경으로 개선
- 플라스틱, 비닐보다 나무, 종이, 형광 등 활용

실천6

함께 어울려 생활하기

- 언니, 형, 동생이 함께 놀고 생활하는 보육
- 연령통합(영아·유아 가능 연령), 세대통합(영유아-어르신)
- 스마트폰, 게임기 등 전자매체 적게 이용하기

실천7

참여하며 함께 키우기

- 운영위원회 활성화(민주적 운영)
- 보육교직원의 조직문화 개선(적극적 참여)
- 등하원시 보육실까지 개방하기

실천8

안정적인 근무환경 만들기

-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 업무간소화



참고 문헌

- 김선희, 신세니, 박성미, 조희숙(2010). 생태유아교육기관의 일상생활에 대한 유아 인식, 생태유아교육연구, 제 9권 제 4호, 165-186
- 김솔미(2010). 생태유아교육기관과 일반유아교육기관 유아의 체격, 체력 및 투약 현황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은주, 김솔미, 임재택, 하정연, 백영호(2010). 생태유아교육기관과 일반유아교육기관 유아의 체격 및 체력 비교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제 9권 제 1호, 51-70
- 노혜진(2015). 숲 활동이 유아 감기에 미치는 영향-숲 활동 빈도와 감기약 투약 횟수와의 상관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마유미, 정선아(2012). 자연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긍정적 정서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제 11권 제 4호, 163-191
- 서영희, 김은주(2009). 생태유아교육기관 유아들의 일과에 대한 질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제 8권 제 2호, 163-185
- 안소영, 이상희, 이종하, 이남정(2020). 서울시 생태친화 보육 사업의 효과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숙희(2019). '아이를 살리는 자연건강프로그램' 부모 교육 자료,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임재택, 심미연(2007).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연령통합 교육과정 운영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 46권 제 2호, 1-20
- 임재택, 조순영, 임지연, 송주은(2019). 서울시 생태친화어린이집 안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채영숙, 하연희(2016). 생태유아교육거점유치원 운영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의미, 생태유아교육연구, 제 15권 제 3호, 149-173
- EBS 지식 채널 e(2017.5.4.). 나의 총착자는 어디인가요?, EBS

기획·집필 이남정(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경진(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획총괄사업팀장)
정애선(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감수 조순영((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소장)
송주은(동의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일러스트 김예나

발행 2020년 3월

발행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2-772-9814~9

디자인·제작 하늘디자인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생태친화
어린이집!

비매품/무료

03300



9 791185 917405

ISBN 979-11-85917-40-5